#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 586명… 총 3736명

대구·경북만 3260명 달해… 격리해제 30명으로 늘어 18번째 사망자 뇌경색 등 앓아… 3만3360명은 검사 중

1일 하루 동안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8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376 명과 210명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는 총 3736명으로 늘어 났다. 오후에 새로 확진된 210명 중 177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대구136명, 경북 41명이다. 그 외 지역별확진자는 강원 8명, 충남 8명, 서울5명, 경기 5명, 울산 3명, 부산 2명, 전북 1명, 경남 1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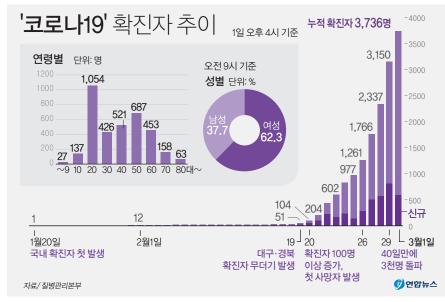
대구·경북 누적 확진자는 총 3260 명이다. 대구 2705명, 경북 555명이 다. 다른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경기 89명, 서울 87명, 부산 83명, 충남 68명, 경남 63명, 울산 20명, 강원 15명, 대전 13명, 충북 11명, 광주 9명, 인천 6명, 전북 6명, 전남 3명, 제주 2명 세종 1명 순이다.

국내 확진자 중 사망자는 총 18명 이다

이날 확인된 18번째 사망자는 83 세 남성으로 뇌경색,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지병)이 있었다. 정확 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총 30명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9만8000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3736명을 제외하고 9만5185 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 중 6만1825 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3만3360 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전 10시(오 전 9시 기준)와 오후 5시(오후 4시 기준) 하루 2차례 신종코로나 환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1일 하루 동안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8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연합뉴스

#### 생후 45일 신생아도 확진 전국 최연소 확진자 발생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으로 일가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9 일 경산에서 부모와 거주하는 생후 45일 된 남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을 받았다. 전국 최연소다.

2020년 1월 15일생인 아기는 지난 달 22일부터 엄마(30)와 의성 친할 머니 집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 엄마도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모자가 동시에 확진으로 나왔다.

아기 엄마는 아이와 함께 시댁인 의성에서 산후조리 중이었다.

아이 아빠는 지난 달 27일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구급차 추가 배치 1일 오전 대구 달서구 두류정수장에 전국에서 지원 나온 구급차들이 환자 이송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학교가 사둔 마스크 580만개 일반에 보급

긴급돌봄 열흘간 필요 수량 제외하고 개학 전 채워주기로 개학 일주일 추가 연기 가능성 커져… 교육부 조만간 결정

정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보유 한 마스크 1270만개 중 580만개를 수 거해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계획에 따라 이렇게 협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 당국은 15개 시·도의 학생· 교직원이 긴급돌봄 교실에서 열흘 (평일 기준)동안 사용할 마스크가

690만개라고 판단했다. 대구·경북 지역 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수거 대 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가 비축해둔 마스크 1270만개 중 45.7%인 580만개는 일반 국민에게 공급하기로 결정됐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는 전날 160만개 제공을 완료했다. 강원·경남· 광주·대전·부산·울산·세종·전남·전북· 제주·충남·충북 등 12개 지역 학교는 나머지 420만개를 조만간 제공한다. 학교에서 수거된 마스크는 중대본

학교에서 수거된 마스크는 중대본 이 농협·우체국 등 공적판매처와 일 반 시장에 공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이번 주가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했다"면서 "긴급돌봄 교실에 필요한 마스크는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개학 전에 마스크 재비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를 절반 가까 이 걷어서 어른들에게 나눠주는 게 옳냐"는 불만이 나온다. 또한 정부가 빌려 간 마스크를 언제 되돌려줄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보 도자료에서 '개학 전 마스크를 보충 해주겠다'고 했을 뿐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일이 언제가 됐든 그 전 주에는 마스크를 보충해줄 것"이라면서 "(개학을 앞두고는) 마스크를 우선 공급받기로 중대본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마스크를 수거하면 서 긴급돌봄 교실에서 열흘 동안 필 요한 마스크를 제외한 점으로 미뤄 보면, 전국 학교 개학을 일주일 더 연기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관측 이 나온다.

교육부는 조만간 추가 개학 연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신천지 피크' 후 증가세 꺾일까?

### '의심환자' 감소가 선행조건 "다른 지역사회 위험 살펴야"

지난 2월 4일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3886명이 늘어 2만4324명을 기록하면서 하루 증가 폭으론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당시 일부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통 제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러자 아직도 신규환자가 하루 3000 ~4000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슨 소리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후향적인 데이터로만 보자면 이 분석은 제대로 들어맞았다. 중국의 환자 발생은 이날 이후부터 실제로 꺾이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당시 확진자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이보다 앞선 10여일 전부터 코로나19 유증상 의심환자 신규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1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미국의학협회지(JAMA)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중국 내코로나19 증상 발생자는 1월 25일에 피크를 찍은 이후 서서히 줄어들기시작했다. 이어 확진자 수가 정점을찍은 2월 4일에는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고, 2월 10일에는 10분의 1 수준 이하에 그쳤다.

국내 전문가들은 지금이 앞선 중 국의 사례에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시 기'라고 지적한다.

방역당국은 신천지교회 신도 전수 조사로 유증상자와 확진자를 가려내 고 나면 현재의 코로나19 환자 급증 추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신 천지 요인을 제외한 다른 지역사회 에서 신규 유증상자 발생이 줄어드 는 게 동시에 확인돼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즉, 며칠 뒤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가 모두 이뤄지고 그 이후 확진 자 증가 추세가 줄어든다고 해도 다 른 지역사회의 유증상자 신규 발생 이 줄어드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방 역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가 신천지 관련 방역에 만 너무 몰입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 장(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은 "이 제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내주부터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진단 시점의 환자 추세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이 발현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감소세를 뒷받침 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CDC처럼 국내에서도 증상 발현일 기준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유증상자가 줄고 있는지, 다른 지역 에서의 유행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 오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감염이 의심되는 유증상자들에 대한 검사 건수가 점차 줄어든다면 감염자 증 가 가속도가 줄어들고, 확진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지 역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위 험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유증상자 를 찾아내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